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N BRANCH

업무연락처(사무총장): 이세련

(사무국장): 강다정 (010-4492-6323), ilakoreanbranch@gmail.com)

사무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422호 (www.ilakorea.or.kr)

2024. 01. 31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KOREA) 취임사

2024~2025년 임기 2년의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KOREA)의 회장직에 취임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석우입니다. 먼저 그동안 ILA-KOREA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4일(수) 총회에 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법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국제법의 연구, 설명 및 발전”과 “국제법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존중의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1873년 10월 브뤼셀에서 ‘국제법의 개혁과 법제화를 위한 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LA-KOREA는 1964년 7월 15일 서울에서 설립되었으며, 1964년 8월 22일 세계국제법협회 총회에서 공식 지부로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인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4년 8월 21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법인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3년 동 학회에 이사로 참여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ILA 활동의 핵심인 격년제로 진행되는 총회와 각종 위원회(Committee) 참여, 그리고 연구단(Study Group) 설립을 통해서 ILA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ILA-KOREA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국제법의 국내 이행에 대한 아시아 국가관행 (Asian State Practice of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연구단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 연구단은 수사(修辭)적으로 통용되는 소위 ‘아시아 국제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 승인되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가 Brill에서 『아시아 국제법 백과사전(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sia (3 vols))』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ILA 본부(HQ), 한국본부(ILA-KOREA)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체득한 이해를 기본으로 저는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ILA-KOREA 학회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해당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ILA-KOREA는 말 그대로 ILA의 한국본부이기에 학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ILA 본부의 운영과 궤를 같이하고자 합니다. ILA-KOREA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국제법 관련 단체들과의 차이점은 ILA 본부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9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단 모두에 대한 학회원의 참여를 기본적인 사업의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사업:

(1) ILA 총회 참석 및 ILA 위원회 및 연구단 참여

: 격년제로 열리는 ILA 총회는 올해 그리스 아테네에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제81차 대회에 많은 학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단에 대한 학회원들의 현재 참여 상황을 파악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와 연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출판(KYIL 한국국제법연감)의 활용도 제고

: 작년말 제10호(2022)가 출간된 학회의 영문간행물 한국국제법연감(KYIL)은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법연감(KYIL)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바 있는 고(故) 최승환 선생님과 협의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편집위원회와 학회원들의 의사를 기반으로 해외출간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 출판과 해외 출판의 장단점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비교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회원 관리 및 기금 마련)

: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업무인수 과정에서 파악된 격감한 회원 현황을 분석하여, 회원의 확대 및 관리, 그리고 추가적인 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업:

(1) 60주년 사업 추진(기념 국제·국내 학술대회 및 60주년사 편찬작업)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LA-KOREA는 1964년 7월 15일 서울에서 설립되었으며, 1964년 8월 22일 세계국제법협회 총회에서 공식 지부로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인 올해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60주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및 임기 시작이 늦어 행사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의 진행은 동 학회의 향후 60년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사이기에, 지난 학회의 60년과 향후 60년을 위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회 사업으로 『60주년사 편찬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2) 학회 활성화 및 국제법 저변 활동을 위한 역할(STUDY MISSION과 국내 학술활동)

: ILA 총회가 격년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가 진행되지 않는 홀수년도(2025년)에는 학회원들의 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기획, 정례화(STUDY MISSION)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회 활성화 및 국제법 저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국내 학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 ILA-KOREA 설립 70주년 사업으로 2034년 제88차 ILA 총회 서울 개최 추진

: ILA 학술대회는 1873년 제1차 대회를 브뤼셀에서 진행한 이후 2차례의 세계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격년 등 다소 불규칙하게 진행되던 ILA 학술대회는 1948년 제43차 브뤼셀 대회 이후 격년제 행사로 정례화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1986년 제62차 서울 대회), 일본(1964년 제51차 동경 대회, 2020년 제79차 교토 대회), 대만(1998년 제68차 타이페이 대회), 인도(1974/75년 제56차 뉴델리 대회, 2002년 제70차 뉴델리 대회), 필리핀(1978년 제58차 마닐라 대회)에서만 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된 총 80차 대회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단 5개 국가에서 7차례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국제법 담론의 형성에 있어 아시아의 역량 부족과 후발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석부회장(차기회장)으로 선임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 등 집행부 구성원과 협의하여 ILA-KOREA 설립 70주년 사업으로 2034년 제88차 ILA 총회 서울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ILA-KOREA는 학회의 다양한 의견이 후원기관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견고한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와 함께 그 역할을 같이 해주실 집행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	성명	소속/직위	비고
집행부			
회장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회장	김영석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박지현	영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동원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교수	
사무총장	이세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동북아법연구소장	
직무이사	김세미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제·출판
	박미경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기획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기획
사무국장	강다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재학	

집행부와는 별도로 한국국제법연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회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국제법연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편집주간	정다혜	동시통역사	
감사			
감사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독도해양법연구실장	
	심상민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학회를 대표하여 향후 2년간 저와 같이 학회 발전에 매진할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어 단어 succeed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다는 의미와 함께 뒤를 잇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학회의 60년을 이어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60년의 발전에 함께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학회의 활동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이 석 우

